

#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단체장 대거 도전...비리 오점도

## 광주시·전남도의회 결산

제7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막을 내렸다.

특히 시·도의원들이 지난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대거 도전하는 등 시·도의회가 지방정치인 양성의 요람 역할도 톡톡히 했다.

광주시의회=제7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혁 성향의 젊은 시의원들이 많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조례 발의 등을 이끌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의회는 2014년 7월 출범 후 정례회 8회 235일, 임시회 34회 287일 등 모두 42회에 거쳐 522일간 회의를 진행, 의원 발의 334건, 단체장 발의 373건, 위원회 발의 3건 등 모

시의회, 725건 조례 접수...의원 3명 뇌물 비리 사법처리  
도의회, 안전처리 9대보다 74% ↑...외유 등 폐단 여전

두 725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주민 발의는 없었다.

또 예산결산은 62건, 동이나 승인은 210건,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71건이 처리됐다. 조례안 중 692건은 원안 의결, 104건은 수정 의결됐고, 3건은 부결 그리고 2건은 폐기됐다. 철회 6건, 계류 12건 중 18건은 미처리됐다. 진정서는 모두 95건으로, 산업건설 65건, 환경복지 15건, 행정자치 9건, 교육문화 6건 등이다. 인터넷 민원은 181건이 접수됐다.

광주시 189회, 시교육청 52회 등 모두 241회에 걸친 시장질문과 110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

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도시철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광주시 인사 난맥상과 대책 수립, 책임감리제 개선 관련 등 긴급 현안질문도 14건에 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4년 간 3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 1249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1042건은 제안사항으로 처리됐다. 6개 특별위원회가 가동됐고, 예산결산, 윤리, 문화도시, 도시재생 특위는 2014년, 군 공학 이전과 청년발전 특위는 201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또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도 각각 99회

와 72회 진행됐다. 47회에 걸친 의원 연구모임과 27회 진행된 정책연구 용역, 82회의 정책네트워크, 19차례의 비교견학, 11차례의 의원 워크숍, 11차례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의정활동에 양적,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 학생 모의의회에는 18개 학교에서 18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반면 의장 출신 등 3명의 의원들이 뇌물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되면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전남도의회=제10대 전남도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4년간 1437건의 안건을 처리, 824건을 처리한 9대보다 74.4% 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각종 비위, 무분별한 해외 연수 등 도덕성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개원한 10대 의회는 지난 26일 제322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10대 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7회를 열어 모두 14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884건, 동·승인안 128건, 건의·결의문 101건, 예결산 40건 등이다. 이는 제9대 824건보다 74.4%나 증가한 수치다.

침체되는 농어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서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등 관련 조례 61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호남선 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반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등 건의문으로 도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8개 연구단체 운영 등 활동도 이어졌다. 경북도의회와 상생 협약, 호남권 3개 시도 상생 협력 등 국내는 물론 일본 후쿠오카·고치현, 중국 산시성 등 국외 교류 실적도 남겼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비리로 구속기소돼 사퇴하는가 하면 뇌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잇따랐다. 발라하와이 등 관광지 위주 외유성 연수로 대륙 일주에 혈세를 펴며 쓴다는 비난도 잇따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혹독한 평가를 받아 의원 57명 중 26.3%인 15명만이 의원배지를 유지했다. 제11대 의원 당선인 가운데 초선이 41명으로 70.7%를 차지했다. 재선 12명, 3선은 5명에 그쳤다. 민주당 12명, 3선은 5명에 그쳤다. 민주당, 나머지 4석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2명씩 나눠 갖게 됐다.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의회 내 견제 세력 부재, 초선 중심 재편에 따른 경험 부족 등이 다음 의회의 해결 과제로 남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국비 확보 광폭 행보

### 오늘 이 총리·경제부총리 면담 내일 행안부장관 만나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을 만났던 이어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 등 3명의 국무위원을 면담한다.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다.

27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취임준비기획단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28일 오후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다.

당선인 신분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고 예산 확보 행보다.

김 당선인은 김 부총리에게 전남 현안

을 설명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김 부총리 면담 후 이낙연 총리를 방문한다. 전남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총리와 전남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29일 오전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그는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재정분권 추진과 섬 개발 촉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김 장관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앞서 지난 25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만나 전남 현안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경남도청 흉준표 기념식수 땀했다 27일 경남도 관계자가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흉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경남도 채우 제로'를 기념해 심었던 기념식수를 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섭 복지·여성정책 현실성 없다”

### 광주 76개 복지단체,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반대

광주지역 76개 복지단체의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측이 내놓은 복지·여성분야 정책이 현실성과 구체성, 시민과의 소통이 생략됐다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의 성토가 집중된 것은 광주시장직 인수위 측이 당선인에게 제안한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사업이다. '퇴직 공무원 등 부자 노인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이유에서다.

광주복지연대는 27일 “이용섭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7기 광주시장직 인수위

성격인 광주혁신위 복지여성분과가 최근 내놓은 정책계획에 담긴 광주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제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그동안 대규모 노인건강타운 조성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용섭 당선인과 혁신위가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에는 선거기간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마저 빠져있고, 반영된 공약도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채용시험 대행업체 고소

### 채용과정 합격자 뒤바뀌어

광주도시공사가 채용과정에 합격자가 뒤바뀐 것과 관련, 채용시험 전문대행업체를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27일 광주도시공사는 “신규직원 2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전문대행업체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직원을 채용했는데 채용시험 대행업체의 잘못된 합격자 통보로 채용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 대행업체를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월 이 업체와 대행계약을 했고 이 업체는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의 전체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합격자를 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지난 4월 17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대행업체로부터 통보 받아 4월 18일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과정 등을 거쳐 5월 2일 임용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20일 광주시 채용감사에서 최종합격자 명단과 인적성검사 부속서류가 다른 점이 적발됐다. 인적성검사 결과 적합자 2명을 부적합자로, 부적합자 2명을 적합자로 통보해 최종합격자 1명이 바뀌고 1명은 면접회차가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추가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청렴도 끌어 올리자”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구성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오늘 공포

전남도가 청렴도 바닥권 탈출을 위한 특단 대책을 내놨다. 민관협의체 구성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민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 조사·연구·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민관협의체는 공공 의장(도지사)과 민간 의장 2명을 포함해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8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발대식 등을 통해 본격 활동을 알리기로 했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 부문 중심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반부패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국토의 미래를 향해

세대를 넘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LX가 새로운 국토정보를 만들어갑니다

국토의 기초를 세우다 지적측량사업 | 스마트국토 시대를 열다 지적지조사사업 |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 국토공간정보사업 | 우리 기술을 세계로 내보내다 해외사업 | 국가발전에 기여하다 교육·연구

대한지적공사의 새이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